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숨은 조력자-프로보노” 김준래 변호사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효 성

프로보노(pro bono)는 라틴어의 “pro bono publico(공익을 위하여)”를 줄인 말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함과 동시에, 의료봉사나 법률자문 등 공익을 위한 도움을 주는 전문가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프로보노의 활동 중 법률 분야의 경우,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에서의 프로보노에 의한 법률 분야에 대한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열악한 지역 법률 분야 프로보노 활동문제를 알고 고향인 충남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위해 프로보노로서 활동하는 김준래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도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34기)를 수료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민사조정위원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16년간 선임변호사로 활동했다. 공단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하

고,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항상 연구하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오랜 공공기관에서의 법무업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들로부터 스카우트제약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리치고 작년 5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법률 사무소(변호사 김준래 법률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를 특화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학위취득 전공분야인 채권채무·임대차·부동산 등 민사법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업무를 위한 법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성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그가 프로보노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고향이자, 본가인 아산에 대한 애정과 고향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그의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충남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 충남의 사기업(이하 사회적경제기업)이 하는 좋은 일들을 알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프로보노로서 법률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겪는 제반 법률적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법률 관련 고충들에 대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일을 맡고 있다.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들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행정 업무가 현장 기준이 아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 법 해석을 바꿈으로써 충남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제도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큰 성과이자 보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프로보노분들이 합심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는 것은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협력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현장지원활동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필요한 법적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할 부분으로는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입법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주체인 사회적경제기업들 또한 자치법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하는 입법 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날 사회의 세대, 성별, 계층 간 다양한 갈등과 반목이 격화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면서, 이러한 갈등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공동체적 의미를 구현하고, 공공성과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유의미함을 언급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계층, 남녀, 노소 등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하기 보다는 알력과 반목이 커지고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의 극성화로 인하여 공동체적 사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함께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는 기회가 된다면 자신을 성장시켜 준 충남에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법률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내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법에 의해 보호받는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